

페루 레기아 정부의 신 조국과 근대도시 만들기*

서지현**

목 차	
I. 서론	상징적 공간 변화
II. 레기아 정권의 신 조국(Nueva Patria)과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IV. 레기아 정권하 리마 도시 근대화의 성격
III. 레기아 정권하 리마의 물리적·	V. 결론

| 논문요약 |

19세기 런던, 파리 등과 같은 선진 산업국 도시들의 근대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반면 수도의 파리화 혹은 오스만화를 지향했던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도시 근대화는 도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식민 도시와 단절하고 진보와 근대화를 추구한 엘리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었던 도시 근대화의 사례 중 페루의 수도 리마의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본 연구는 리마의 도시 근대화가 본격화된 레기아 집권 2기를 중심으로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과정 및 성격에 관해 분석하였다. 레기아 정권이 시도한 수도 리마의 근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공중 보건 위기와 주거 문제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건조 환경에의 투자와 그에 따른 도시 근대화의 과정은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과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이었다. 다만, 파리의 오스만화가 민간 자본의 추진력과 더불어 나폴레옹 3세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오스만의 기술 관료적 전문성이 함께한 결과라면, 1920년대 리마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2093112).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도시 근대화 과정은 레기아 정부의 수사적 의지와 더불어 미국 자본과 토지 소유 엘리트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레기아 정권은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기념물을 배치하여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레기아 정권이 원주민적 요소를 활용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징을 활용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디헤니스모를 도시 공간에 활용한 대표적인 국가인 멕시코와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것이다. 레기아 정권의 경우 관 주도의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이해는 일부 원주민 문화의 상징적 요소를 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머물렀다.

▪ 주제어: 도시 근대화, 레기아 정권, 리마, 페루, 신 조국

I. 서론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19세기 초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달성했으나, 이후 각 지역 군사 지도자였던 카우디오(caudillo)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 사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하면서 천연자원 수출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 서서히 정치·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독립 공화국의 진보와 근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이 지향한 진보와 근대화의 이상향은 유럽, 특히 빅토리아 시대 산업화 발전을 주도한 영국과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였다(López 2014, 3-4). 런던이 “산업화된 근대”의 대표로 인식되었다면, 파리는 “정치 문화적 근대성”을 대표하는 도시였다(박성창 2022, 29-31). 특히, 파리는 19세기 중반부터 문학과 예술 등이 발전된 유럽 제일의 문화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박성창 2022, 37).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 등지와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와 문화적 친밀감을 공유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층을 포함한, 예술가, 문학가, 건축가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엘리트들은 프랑스적인 것을 좋은

것, 도덕적인 것, 근대적인 것으로 표본으로 받아들였다(López 2014, 123-124; Mazuré 2015, 62-63). 따라서 이 시기 프랑스로의 여행은 신문물을 받아들일 기회로 인식되었다(López 2014, 124).

이 시기 파리가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에게 미친 지대한 영향 중 대표적인 사례는 도시의 근대화였다. 19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파리는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따라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김홍순 2021, 34). 나폴레옹 3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1853년 센(Seine)주의 지사로 임명된 오스만에게 파리를 전면 개조할 것을 명했다(김홍순 2021, 36). 그 결과 나폴레옹 3세 시기인 1853년에서 1870년 사이 오스만이 주도한 파리 대개조는 격자방사형 가로 체계를 통해 도시 공간을 재정비하고, 외곽지역으로 도시 공간을 확장했으며, 새로운 건축물과 건축 양식을 도입하고 도시에 공공 공간과 녹지 공간 등을 형성하여 기념비 등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등 중세 파리와는 물리적, 심미적 단절을 시도했다(김홍순 2021, 38-40).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오스만이 주도한 파리 대개조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중세로부터 단절한 파리를 “모더니티의 수도(capital of modernity)”라고 불렀다(하비 2019).

19세기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근대화를 추구한 많은 엘리트들이 근대성의 상징이자 표본으로 알려진 모더니티의 수도를 모델로 삼게 된 것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 번째 배경은 19세기 전반기의 파리와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도시 역시 인구 과밀과 위생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했다(López 2014, 19). 두 번째,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 식민시대의 도시 모델과의 단절을 위해 수도의 파리화 혹은 오스만화를 시도했다. 즉, 식민시대의 정치와 종교적 권력의 재현 공간이었던 도심을 넘어 외곽지역으로 도시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근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과 기념비 등을 도시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재현하고자 했다(López 2014, 122; Mazuré 2015, 16). 다시 말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의 산티아고,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등에서 추진된 도시 근대화는 당시 엘리트들의 진보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도시 공간에 재현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러한 도시

근대화 과정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대 민족 국가 정체성의 재현과 같은 상징적이고 심미적인 요소를 포함했다(Rama 1998; Mazuré 2015, 13). 물론, 이러한 도시 근대화 시도는 국가의 재정 상태와 주체 등의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실현되었다(López 2014).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과 같이 1870년대 이후 수도의 파리화 혹은 오스만화를 시도한 페루의 수도 리마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총 3시기에 걸쳐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식민 시기였던 18세기 중반 부르봉 개혁과 함께 도시 근대화가 시도되었으나 독립운동과 스페인 제국의 몰락으로 인해 그 활력을 잃었다(서지현 2023a, 127). 두 번째 리마의 도시 근대화 시도는 구아노 붐에 따라 페루가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시기로, 특히 식민 통치 시기부터 리마의 물리적 경계를 제한하고 인구 밀집과 전염병 등의 위생 문제 등을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리마 성벽 철거가 주요한 성과였다(서지현 2023a). 이와 더불어 도시 내 도로포장, 가스등 설치, 상하수도관 형성, 철도 건설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도시 계획안이 제안되고 실천되기도 했다(Quispe 2020, 84). 하지만 리마 성벽 철거와 그에 따른 리마 근대화 시도는 태평양 전쟁(1879-1883년)과 칠레군의 리마 점령으로 상당 부분 그 성과가 퇴색되었다. 따라서 리마의 본격적인 도시 근대화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페루가 농산물, 광물 등 원자재 수출을 통해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재편입하게 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재개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원자재 수출로 인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엘리트 계층이 권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인 정치·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엘리트 계층은 리마를 런던, 파리, 뉴욕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고조되어 있었다(Parker 1998, 154).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주요 도시들이 이미 1870년대 중반 이후 눈부신 근대화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리마의 경우 1876-1900년 사이 인구나 도시 규모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895년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면서 이전의 도시 근대화 프로젝트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주도의 도시 근대화가 본격화된

레기아(Leguía) 정부 집권 2기(1919-1930년)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과정 및 성격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레기아 정부는 1919년 집권하면서 신 조국(Nueva Patria)이라는 기치 아래 이전의 과두 지배 체제와의 단절과 함께 페루의 근대화 발전을 시도했다. 특히 정권의 근대화 노력이 가시화된 사례 중 하나가 수도 리마의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본 연구는 레기아 정부 시기 수도 리마를 근대도시로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리마의 물리적 공간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고, 민족 정체성 구현과 같은 상징적 요소는 어떻게 도시 공간에 재현되었는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장에서 1920년대 레기아 정권이 리마의 도시 근대화를 시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권의 담론적 기반인 신 조국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정권이 주창한 신 조국을 기반으로 레기아 정권이 리마라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물리적·상징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레기아 정권이 시도한 리마 도시 근대화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II. 레기아 정권의 신 조국(Nueva Patria)과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1. 레기아 정권의 성립과 신 조국

본 장에서는 레기아 집권 2기(1919-1930년)¹⁾ 정권이 주창한 신 조국(nueva patria)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권이 신 조국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인 리마 도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평양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노력은 시민당(Partido Civil)에 기반한 정

1) 레기아는 1908-1912년 사이 처음으로 페루의 대통령으로 집권했고, 1919-1930년 사이 두 번째로 페루를 집권했다. 특히 레기아의 두 번째 집권기는 11년간의 통치를 이어갔다고 하여 온세니오(oncenio) 시기라고도 부른다.

치·경제적 엘리트 그룹이 주도한 근대화 발전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페루의 역사학자이자 전(前) 교육부 장관이었던 호르헤 바사드레(Jorge Basadre)는 1895-1919년 사이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이 집권한 시기를 엘리트 공화국(República Aristocrática)이라 명명했다(Casanova 2006, 258). 이 시기 페루는 광물, 농산물 등의 원자재 수출을 통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재편입했으며, 대공황 이전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기반해서 과두 지배 세력들은 1870년대 초 만들어진 시민당(Partido Civil)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안정을 누렸다(Navarro Jiménez 2016, 30-31). 이 시기 과두 지배 세력은 주로 광산업과 같은 추출산업과 대농장 등 농업과 이해관계와 얽힌 40여 개의 가문이었다(Aguirre 2016, 44; Mazuré 2015, 90; Navarro Jiménez 2016, 30).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했으며, 동시에 자유주의 사상, 과학적 실증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물질적 진보를 통한 근대화 혹은 서구화를 추진하고자 했다(Navarro Jiménez 2016, 30).

레기아(Leguía) 역시 시민당의 일원으로 1908-1912년 페루를 집권했지만, 이후 시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당과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된다(Mazuré 2011, 103; Mazuré 2015, 91). 따라서 1919년 두 번째로 페루를 집권하게 되면서 레기아는 시민당에 기반한 엘리트주의 과두 지배 체제와의 단절과 차별화를 정권의 목표로 삼았다(Joffré 2014, 32; Tapia 2018, 30). 1919년 대선 캠페인에서 지방, 청년층, 중산층에 호소해서 지지를 얻었으나, 선거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7월 5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국민투표와 제한 의회를 거쳐 대통령으로 최종 승인되었다(Mazuré 2015, 94). 집권 이후 1920년 1월 제정된 헌법에서 레기아 정권은 국가 근대화 발전을 위한 신 조국(Nueva Patria)의 건설을 주창했다(Mazuré 2011, 103). 따라서 신 조국에 대한 이해는 레기아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레기아는 신 조국이라는 기치 아래 근대화 발전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목표로 정권은 산업화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페루 경제를 통제하고 있던 영국 자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미국 자본의 영향력이 공고화되었다(Mazuré 2011,

98). 특히 레기아 정부는 석유, 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담보로 한 외채의 증가를 통해 공공사업 분야에서의 정부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재정을 확보했다(Mesía-Montenegro 2006, 144). 또한 미국 기업과 같은 해외 민간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Joffré 2014, 32). 레기아 정권의 외채와 미국 자본의존도는 정권 전반기에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외채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권 중반 이후 정치·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정권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다 강화하게 되었고, 집권 말기 대공황과 함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레기아는 정권에서 물러나게 된다(Casanova 2006, 258).

두 번째는 정치 문화적인 목표로 강력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해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전의 과두 지배 세력이 통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만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레기아는 원주민의 상징 회복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했다(Mazuré 2015, 139). 멕시코에서 20세기 초의 혁명 이후 인디헤니즘(indigenismo) 수용을 통해서 식민지 과거와 단절하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처럼 20세기 초엽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민족 정체성 형성을 시도했다(Molina 2015, 99-101). 특히 1차 세계대전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과두 지배 계급의 지배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Molina 2015, 101). 더욱이 19-20세기 사이에 진행된 인디헤니스타(indigenista)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구성에서 원주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Sanchez 2018, 15). 특히 인디헤니즘은 기존에 후진적이고 전통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원주민을 재인식하고 근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원주민의 위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Sanchez 2018, 15).

페루에서 인디헤니즘(indigenismo)은 정치, 사회, 문화적 운동으로 민족 정체성 형성에서 페루 대중과 엘리트들이 원주민과 잉카 문명을 수용하고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국가 근대화 발전 및 정체성 형성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Sanchez 2018, 14). 20세기에 들어서기 전 페루 사회에서 원주민은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양모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산 지역의 대지주들을 원주민/농민들을 더욱 착취하여

이윤을 보존하고자 했다(Hernández 2015, 36). 이러한 대지주들의 착취에 원주민/농민들이 저항하자, 도시의 메스티소(mestizo) 지식인들이 지주들의 착취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페루의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운동이 부상했다(Hernández 2015, 36). 다시 말해, 인디헤니스모는 크리오요(criollo)나 메스티소 지식인들이 정치·문화적 담론에 원주민을 포함하고 이러한 민족 정체성을 근대성에 포함하고자 한 시도였으며, 페루 사회 전반에 원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가시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Molina 2015, 108). 인디헤니스모와 더불어 잉카이스모(incaismo)는 원주민의 해방에 대해 논하고, 잉카 제국의 특징을 집어내, 이를 공통의 기억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페루 정체성에 원주민성과 잉카성을 통합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Sanchez 2018, 19).

레기아 정권은 인디헤니스모와 잉카이스모의 영향을 수용해 민족주의 담론을 형성하고, 원주민의 문화 회복을 강조했다(Mazuré 2011). 이전의 과두 지배 세력이 안데스적인 것을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레기아 정권은 신 조국의 기치 아래 민족적 상상력에 원주민적인 것을 포함하고자 했다(Tapia 2018, 29). 다시 말해, 엘리트 공화국 시기 시민당파(시빌리스타, civilistas)의 크리오요 담론에서 식민시대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레기아의 신 조국은 안데스적 과거를 이상화하고 크리오요 사상과 조응시키려고 했다(Tapia 2018, 33). 결국 레기아 정권이 형성하고자 했던 민족 정체성은 스페인적인 것과 안데스적인 것의 조응 혹은 크리오요적인 것과 원주민적인 것의 조응이라는 네오페루아니스모(neoPeruanismo)로 규정할 수 있다(Tapia 2018, 36).

하지만 인디헤니스모의 이름으로 안데스 세계로부터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데스 문화, 역사, 세계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Tapia 2018,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기아는 집권 초기 인디헤니스모 운동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지방의 지주층을 경계하고 이들을 봉건시대의 유산으로 비판하며 국가 진보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Hernández 2015, 36). 특히 집권 초기에는 신헌법을 제정해 원주민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원주민 문제 해결을 담당할 기관(Oficina de Asuntos Indígenas)을 설립하고, 원주민의 날(Día del Indio)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친

원주민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레기아는 원주민의 지위를 재정립함으로써 민족주의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레기아 정권은 과두 지배 세력과의 단절을 위해 신 조국을 기치로 근대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도²⁾했다. 아래에서는 레기아 정권의 신 조국 실천 노력 중 대표적인 사례인 리마의 도시 근대화를 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레기아 정권하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리마는 페루의 정치 행정적 중심지이자 경제 중심지로 20세기 초입 리마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하였다.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 대외 무역이 증가하면서 은행업, 보험업, 서비스업 등이 발전하였다(Cabrejo 2001, 48). 1890년대까지 리마에는 섬유 공장이 운영되었으나, 이후 리마에서 소비 생산의 60%가 이뤄질 만큼, 활발한 산업, 상업, 금융, 소비 활동이 리마의 도심에서 진행되었다(Cabrejo 2001, 48; Navarro Jiménez 2016, 56). 그 결과 리마의 인구는 19세기 말 10만 명을 넘어섰고, 1920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Stiglich 2019, 31). 물론 리마로의 국내 이촌향도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사회의 유출효과(push effect)를 통해 본격화되었지만, 20세기 초 리마의 인구 증가는 도시 근대화의 주된 추동 요인 중 하나였다. 더욱이 20세기 초엽 리마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마의 도시 공간은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1876년 1,107헥타르였던 리마의 공간 면적은 1920년 1,426헥타르로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Stiglich 2019, 31). 이러한 현상은 태평양 전쟁 이전 리마 성벽을 철거해 도심에 한정되어 있던 리마의 물리적 경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리마의 생활 반경이 리마 도심 근처에 머물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³⁾ 다시 말해, 20세기 초엽 리마의 도

2) 레기아는 과두 지배 세력의 전통 사회와 단절 시도했지만, 완전히 절연하지는 못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Casanova 2006, 258). 실제 레기아 스스로가 대지주이자 면화 수출업자이기도 했다(Portocarrero et al. 1998, 19). 또한, 정권이 표방한 강력한 민족주의 담론 역시 그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실제 원주민에 대한 보호정책은 대지주제를 경계해 미국의 자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Mesia-Montenegro 2006, 145).

3) 1919년 전 실질적인 리마의 물리적 경계는 서쪽으로는 알폰소 대로(Av. Alfonso),

시 공간은 여전히 현재의 도심인 역사 지구(centro histórico)를 중심으로 한 식민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어난 인구가 정주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20세기 초 리마 인구의 약 44%가 도심의 슬럼화된 정주 공간에 살았다(Joffré 2014, 40). 이들은 카예혼(callejón)이라 불리는 좁은 셋방에 밀집해 살았다. 리마 도심에서 주요 경제 활동이 이뤄졌고, 외곽지역의 경우 적당한 주거 공간이나 도시 인프라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리마 엘리트들도 도심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Cabrejo 2001; Joffré 2014, 40).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카예혼의 경우 인구가 과밀해 있고,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었다(Cabrejo 2001, 56). 특히 1903년 카야오(Callao) 항 근처에서 선페스트 전염병이 발병했는데, 선페스트는 리마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공간에서 특히나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를 양산했다(Cueto 1991; 서지현 2023c). 전염병이 확산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리마의 위생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리마는 이미 쓰레기의 무단 투기와 축적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상하수도 및 포장도로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세기 중반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황열병,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Cueto 1991; Casanova 2006, 259; Quispe 2017, 95).

이처럼 리마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공중 보건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공중 보건 정책과 더불어 도시 건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레기아 정권은 도시 건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기아 정권이 주창한 신 조국은 산업화 발전을 통한 근대화 발전과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한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사업은 유용한 전략이었다. 도시의 공중 보건 위기와 주거지 공급에 대한 수요 증가는 레기아 정부가 도시 건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근대화시킬 동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

남쪽으로는 파세오 콜론 대로(Av. Paseo Colon)까지로 식민 시기의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Quispe 2017, 95; Casanova 2006, 259).

한 근거를 제공했다(Coronado 2018, 176). 이는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유럽의 도시 근대화 발전이 공중 보건 위기에 따른 도시 건조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음과 맥락을 함께 하는 지점이다. 레기아 정부는 신 조국이라는 목표를 통해 근대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공간으로 리마를 선택했다. 레기아 정권이 시도한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크게 물리적 공간 변화와 상징적 공간 변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 물리적 공간 변화는 오늘날 리마 도시구조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Casanova 2006, 258-259). 한편으로 정권은 대로 건설로 대표되는 공공사업을 통해 도시 건조 환경을 개선하고 근대적 도시 공간을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공공 공간을 만들고, 기념물 등을 배치하여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레기아 정권 시기 리마 도시 공간이 물리적·상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는 레기아가 주창한 신 조국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레기아 정권하 리마의 물리적·상징적 공간 변화

1. 리마의 물리적 공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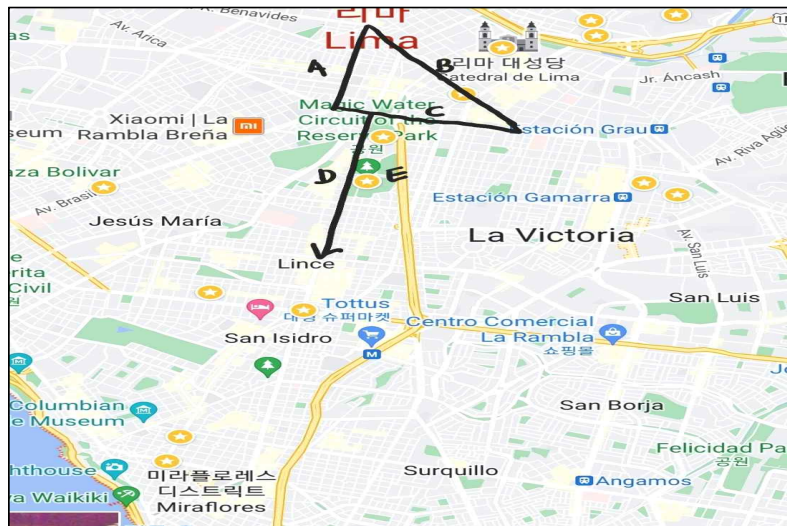
리마의 도시 공간은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며 꾸준히 변화해 왔는데,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리마의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총 5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페루 중앙부 태평양 연안에 식민 도시 리마를 건설한 1535년부터 성벽을 건축하기 전인 1683년까지이다(서지현 2023a). 이 시기 리마의 물리적 공간은 정치 및 종교적 권력이 집중된 리마 구도심 중앙 광장(Plaza de Armas 혹은 Plaza Mayor), 2개의 원주민 집성지, 5개의 교회 교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서지현 2023a, 139). 두 번째 시기는 해적 등의 공격으로부터 식민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리마 성벽이 완공된 1687년

부터 리마 성벽이 철거되기 전인 1868년까지이다(서지현 2023a). 이 시기 리마의 물리적 경계는 중앙광장에서 성벽 내부로 확장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식민 도시에서 근대도시로의 전환기로 도시 인구 과밀과 위생 문제 등의 요인으로 성벽이 철거된 1872년부터 레기아 집권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성벽의 철거로 리마의 물리적 경계가 사실상 없어지고, 철도, 전차, 대로 등의 새로운 교통망이 형성되고, 상하수도망, 전기, 통신 등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사실상의 도시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서지현 2023a, 134). 이와 더불어 이 시기 리마에는 공화국의 새로운 공공 공간이 형성되고, 상업, 산업, 금융 등의 새로운 기능 공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서지현 2023a, 134). 하지만, 세 번째 시기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1879-1883년 사이의 태평양 전쟁으로 중단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물리적 공간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다만, 니콜라스 데 피에롤라(Nicolás de Piérola) 대통령 집권(1895-1899년 집권)기 동안 1920년대 레기아 정권하에서 본격화된 리마의 도시 근대화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피에롤라 집권기에 건설하기 시작한 대로인 콜메나 대로(Av. Colmena, 현재는 니콜라스 데 피에롤라 대로라고 불리며 1901년 개통됨), 도스 데 마요(Dos de Mayo) 광장과 볼로그네시(Bolognesi) 광장을 연결하는 알폰소 우가르테(Alfonso Ugarte) 대로, 미겔 그라우(Miguel Grau) 대로를 연결하는 구도심 외곽의 새로운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형성되었다(Coronado 2020, 253)(<그림 1> 참고). 1919년 이전까지 리마의 물리적 공간은 이 세 개의 대로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레기아 정권에 들어서야 이들 대로가 형성한 삼각형 형태의 공간을 식민 기간 도시의 중앙광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도심으로 삼고, 이 경계 너머로 대로를 건설하며, 도시화된 물리적 공간을 넓혀나갔다. 따라서 레기아 집권 이전 리마의 도시 구조는 리마 구도심, 카야오(Callao)항, 미라플로레스, 바랑코(Barranco), 초리요스(Chorillos) 등이 각각 철도와 전차로 연결된 삼각 구조를 이루며 각 지역에서 일부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서로 연결되어 도시화 되진 않은 상태였다(Casanova 2006, 258; Quispe 2020, 85). 때문에, 1919년 이전에 도시 면적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도시의 과밀도 역시 유지되었다(Mazuré 2015, 69). 특히 건설된 대로 주변에 건물이 건설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화의 진척이 쉽지 않았다(Mazuré 2015, 72).

<그림 1> 새로운 리마 삼각 축과 주요 대로



- 저자 작성(A: 알폰소 우가르테 대로, B: 니콜라스 데 피에롤라 대로, C: 미겔 그라우 대로, D: 레기아(혹은 아레키파) 대로, E: 레세르바 공원)⁴⁾

네 번째 시기는 리마의 물리적 공간이 크게 확장되고 도시 근대화가 본격화된 1920년대 레기아 집권기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시기이다.⁵⁾ 레기아 정부의 리마 도시 근대화 노력은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생 정책, 상하수도 체제의 발전, 대로의 넓은 가로수 길의 건설, 도로포장, 공원, 광장과 같은 공공 공간의 형성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Quispe 2017, 95). 1920년 위생시설법(Ley de Saneamiento, Ley 4126)을 공포하고, 이후 미국 기업인 더 파운데이션 기업(The Foundation Company)과 계약을 맺어 리마의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 상하수도망 건설, 도로포장, 쓰레기 체

4) ABC 대로로 새롭게 형성된 삼각형 공간이 레기아 집권 시기 리마 도심을 넘어 형성된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는 이촌향도가 급물살을 타면서 바리아다(barriada)라는 비공식 정착지가 증가하면서 리마의 인구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1940-1960년 사이의 시기이다(서지현 2023b).

계 형성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했다(Quispe 2020, 90). 그 결과 1930년 리마 도로의 90%가 포장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Mazuré 201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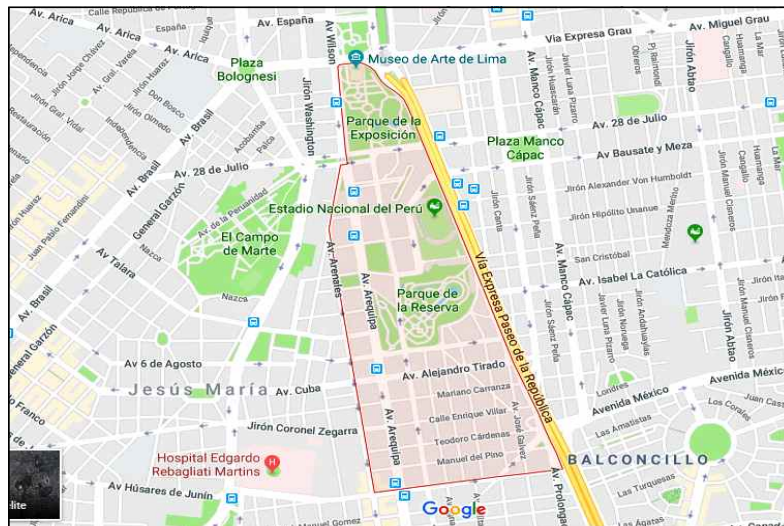
특히 리마의 물리적 공간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대로와 건설과 그에 따른 도시화된 공간의 확장이었다. 레기아 정권은 1921년 독립 100주년과 1924년 아야쿠초(Ayacucho)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리마에서 다양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Mazuré 2015, 19). 대표적으로 1921년 오늘날 아레키파 대로(Av. Arequipa)라고 불리는 레기아 대로(Av. Leguía, 1931년 완공)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물론, 레기아 정권 시기 레기아 대로 이외에도 엘 프로그레소 대로(Av. El Progreso, 오늘날 베네수엘라 대로라고 불리며, 1924년 개통), 우니온 대로(Av. Unión, 오늘날 아르헨티나 대로라고 불림), 알폰소 우가르테(Av. Alfonso Ugarte, 1928년 개통), 28 데 훌리오 대로(Av. 28 de Julio) 등이 완공되거나 개통되었다 (Casanova, 2006; Quispe, 2017).

하지만 레기아 집권기 리마의 물리적 공간 변화와 도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로는 레기아 대로라고 볼 수 있다(<그림 1>의 D). 레기아 대로는 이전 피에롤라 집권기 형성된 새로운 삼각 도심 외곽을 넘어 남부 해안에 위치한 미라플로레스(Miraflores) 지역까지 연결하는 중심 대로로, 개통 당시 남미에서 가장 넓은 대로 중 하나였다(Casanova 2006, 259; Quispe 2017, 95). 특히, 레기아 대로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남부 해안 지역으로까지 도시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Coronado 2018, 184, 195).

대표적으로는 레기아 대로변에 위치한 산타 베아트리스(Santa Beatriz) 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시화되었다(<그림 2> 참고). 레기아 대로가 건설되면서, 1925년 산타 베아트리스 아시엔다의 땅 분배가 승인되었고, 이곳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도심을 떠나 이곳으로 주거지를 옮겨오고, 레세르바 공원(Parque de la Reserva), 경주마 경기장, 축구 경기장, 테니스장 등의 여가 공간도 속속들이 들어섰다(Casanova 2006, 262; Joffré 2014, 48; Coronado 2018, 185, 193). 산타 베아트리스 지역은 리마의 상류층이 처음으로 도심 외곽지역으로 주거 공간을 옮겨 정착한 지역이며, 이후 헤수스 마리아(Jesús María), 마그달레나 델 마르(Magdalena del Mar), 산 이시드로(San Isidro), 미라플로레스(Miraflores) 지역까지 상류층이 이주해 살게 되었다(Mazuré 2015, 165). 이처럼

레기아 정부 시기 도시화 된 공간이 확장되면서, 리마의 도시 면적은 1920년 1426ha에서 1930년 3000ha까지 확장되었다(Quispe 2017, 94; Cockburn 2020, 67). 그 결과 도시화된 공간에 새로운 행정구(distrito)도 형성되었다.

<그림 2> 산타 베아트리스 지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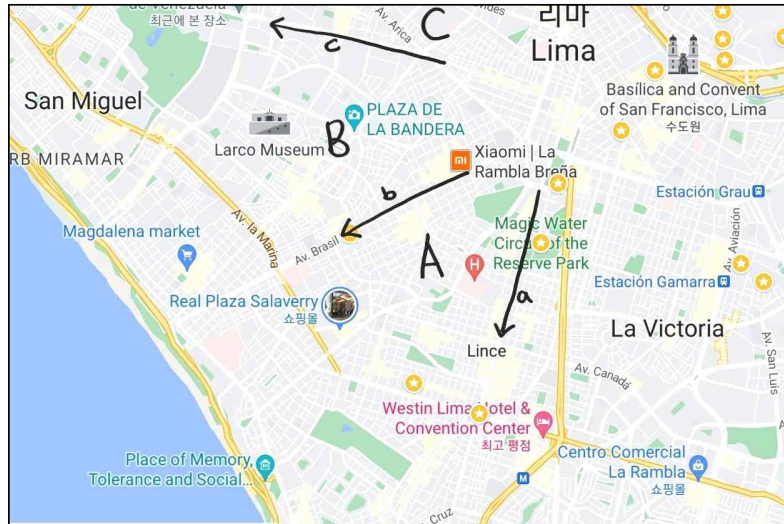


레기아 집권 시기 레기아 대로, 엘 프로그레소 대로, 브라질 대로 등 해안 지역과 연결되는 대로가 건설 혹은 확장되고, 이 대로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도심을 떠나 해안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 정착하기 시작했다(Ludeña 2002, 51). 특히 대로가 건설되고, 도로포장과 함께, 자동차가 다니고 대중교통이 확산되면서 리마 남부 해안 지역으로의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Coronado 2018, 181). 또한, 주요 대로 축을 중심으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 가령 레기아 대로와 브라질 대로 사이는 주거 지역(Zona Residencial), 브라질 대로와 베네수엘라 대로 사이 지역은 여가 및 녹지 공간(Zona de Atracción y Bosques), 베네수엘라 대로와 리막 강변 사이는 산업 지역(Zona Industrial)으로 분화되었다(Cockburn 2020,

6) 산타 베아트리스 지도, <http://limamilenaria.blogspot.com/2017/12/lo-que-viene-pasando-en-santa-beatriz.html>. (2023년 11월 11일 검색)

67)(<그림 3> 참고).

<그림 3> 리마 도시 공간의 기능적 분화



- 저자 작성(A공간: 주거 공간, B공간: 여가와 녹지 공간, C공간: 산업공간,
a: 레기아 대로, b. 브라질 대로, c: 베네수엘라 대로)

이처럼 리마는 대로 건설과 그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화된 물리적 공간이 확장되고 기능이 분화된 도시 공간이 형성되었다. 아래에서는 리마 근대화 과정에서의 상징적 공간 변화를 살펴보겠다.

2. 리마의 상징적 공간 변화

공공 공간은 시민의 공동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치적 혹은 상징적 매개 장소로 활용된다. 특히 공공 공간에서 시행되는 의식과 의례, 건축물, 기념비 등은 근대에 접어들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Rama 1998).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 역시 새로운 도시 계획을 통해 길고 넓은 도로를 건설하고 대로가 교차하는 공간에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Mazuré 2015, 85). 리마

에서의 공공 공간은 19세기 중반경만 해도 성벽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성벽 철거 이후 공공 기념비가 넓은 공공 공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Mazuré 2015, 44). 식민 시기 교회의 종탑(혹은 종루)이 도시의 주요 이정표 중 하나로 꼽혔다면, 근대화 과정에서는 광장, 공원 등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 공간에 세워지는 기념물 혹은 기념비가 도시의 상징물이 되었다(Mazuré 2015, 47). 공공 기념물은 장소를 상징하고, 정치적 권력과 역사적 기억 등을 상징하며,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Mazuré 2015, 47).

레기아 정권은 공공 공간의 형성과 기념물 배치를 통해 정권이 주창하는 신 조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징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1919년 집권을 시작했을 때, 리마에 배치된 기념비는 총 8개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구도심의 중앙광장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다(Mazuré 2015, 74). 하지만, 집권 이후 리마의 도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광장, 공원 등에 신 조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졌다. 레기아 정권 시기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산마르틴 광장(Plaza San Martín), 우니베르시타리오 공원(Parque Universitario), 레세르바 공원(Parque de la Reserva) 등이 있다(Casanova 2006, 260; Mazuré 2015, 129). 주로 이러한 광장이나 공원은 대로와 교차 지점이나 도시화된 도시 공간 곳곳에 형성되었다. 특히 정권은 이러한 공공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신 조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아래에서는 레기아 정권하 형성된 리마의 주요 상징적 공간인 산마르틴 광장(Plaza San Martín)과 레세르바 공원(Parque de la Reserva)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산 마르틴 광장은 니콜라스 데 피에롤라 대로(Av. Nicolás de Piérola)와 히론 델 라 유니온(Jr. de la Unión)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리마의 대표적인 광장 중 하나이다(지도 1의 B 중간 지점에 위치). 산마르틴 광장 건설 계획은 이미 1912년에 존재했지만, 실현되지 못하다가 레기아 집권기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Mazuré 2015, 179-183). 광장은 스페인 출신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마누엘 피케라스 코톨리(Manuel Piqueras Cotoí)의 지휘 아래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1925년 완공되었다(Mazuré 2015, 184). 1921년 7월 21일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완된 상태로 광장 개회식이 열렸다. 정

사각형의 광장 중앙에는 페루의 독립 영웅 중 한 명인 산마르틴 장군 동상이 배치되었다(Mazuré 2015, 183).

산마르틴 광장이라는 새로운 광장은 형성은 식민 시기 정치 및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는 중앙광장과 단절과 새로운 공화국의 정체성을 상징했다. 다시 말해, 식민 권력의 중심인 중앙광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경제적 권력을 상징하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광장이 필요했던 것이다(Casanova 2006, 262). 따라서 정권은 중앙광장과 대치되는 위치에 산마르틴 광장을 건설하고, 독립 영웅에게 바치는 동상을 배치함으로써, 스페인 식민 지배와 단절하고 신 조국을 상징하는 핵심 장소로 삼았던 것이다(Casanova 2006, 262; Mazuré 2015, 188). 특히 이곳에서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정권은 태평양 전쟁 이후 위기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의 형성을 기념하고자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장과 동상을 활용한 것이다.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공 공간은 새로운 공화국의 상징으로써 해외자본의 관심을 촉구하고 페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Aguirre 2016, 59). 특히 광장 주변에 무역, 상업, 여가의 공간, 극장, 영화관, 호텔, 바, 가게, 보험회사, 사무실 등이 들어서면서 광장은 종교와 정치적 중심이 아닌 상업과 금융 중심으로 자리잡았다(Casanova 2006, 262-263).

한편, 산타 베아트리스(Santa Beatriz) 지역은 레기아 정권이 레기아 대로를 건설하면서 가장 먼저 도시화된 공간을 형성한 지역이다(<그림 2> 참고). 이곳은 원래 산타 베아트리스 아시엔다였던 공간으로 아시엔다에 속했던 넓은 숲에 레세르바 공원(Parque de la Reserva)⁷⁾을 만들었다(Mazuré 2015, 350). 공원은 레기아 대로 5-9번째 블록과 이전에 리마 도심에서 초리요스까지 연결하는 전차로(오늘날의 Paseo de la República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Mazuré 2015, 249). 1926년 레기아 대통령은 공원 건설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29년 2월 완공했다(Mazuré 2015, 350). 레세르바 공원은 산마르틴 광장과 더불어 레기아 정권이 신 조국의 상징 공간으로 형성한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다. 산마르틴 광장이 산업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7) 레세르바는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리마를 지키며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매직 워터 서킷(Circuito Mágico del Agua)으로 불린다(Mazuré 2015, 350).

정사각형 광장 중앙에 산마르틴 동상 하나만 배치하고 있다면, 레세르바 공원의 경우 광활한 녹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과 다양한 기념물 및 예술 작품들이 잘 어우러진 공간이다(Mazuré 2015, 350).

이 공원에는 신 조국을 재현하고자 한 장소로 인디헤니스타(indigenista) 성격의 기념비와 공공 기념비가 위치하고 있다(Joffré 2014, 48; Mazuré 2015, 349-350). 공원 내부에는 산마르틴과 함께, 페루의 독립 영웅으로 알려진 안토니오 호세 데 수크레(Antonio José de Sucre)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수크레 광장과 동상이 있다(Casanova 2006, 270; Mazuré 2015, 350). 또한 원주민을 상징하는 조각들로 꾸며진 분수들도 배치되어 있다(Mazuré 2015, 352). 특히 주목할 만한 건물은 카사 데 잉카(Casa del Inca o Huaca Ornamental de Sabogal)인데, 레세르바 공원 내 대표적인 인디헤니스타 경향의 건물이다. 카사 데 잉카는 리마에서 처음으로 모체(Moche) 문명의 도자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Mazuré 2015, 355). 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 공간에 배치된 인디헤니스타적 경향의 기념물이나 건물이 근본적으로 원주민 정체성을 통해 유럽적인 정체성을 대체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Mazuré 2015, 355-356). 오히려 신 조국의 정체성은 원주민적인 상징과 유럽적인 상징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건축 양식이나, 재료 등은 유럽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Mazuré 2015, 356).

이상에서 레기아 시기 리마의 도시 공간이 신 조국이라는 기치 아래 어떻게 물리적·상징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레기아 정권이 진행한 리마의 도시화가 가진 성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IV. 레기아 정권하 리마 도시 근대화의 성격

1.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과 주거지의 공간·사회적 분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레기아 정권 아래 진행되었던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정권이 주창했던 신 조국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명시적 목표는 경제적 근대화 발전과 민족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 공중 보건 위기와 주거 문제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건조 환경에의 투자와 그에 따른 도시 근대화의 과정은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과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이었다. 다만, 파리의 오스만화가 민간 자본의 추진력과 더불어 나폴레옹 3세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오스만의 기술 관료적 전문성이 함께한 결과라면, 1920년대 리마의 도시 근대화 과정은 레기아 정부의 수사적 의지와 더불어 미국 자본과 토지 소유 엘리트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레기아 집권 기간 천연자원에 기반한 외채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의 미국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리마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명실상부한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산업화 발전에 따른 자본 투자처를 확장하고자 했다. 미국 자본은 페루의 광산, 석유, 설탕 농장, 철도 등에 관심을 가졌다(Mazuré 2015, 85). 미국 자본은 도시 건조 환경의 건설 및 도시화 과정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러한 미국 자본의 투자 확대와 함께, 아바나(Habana), 몬테비데오(Montevideo),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리마(Lima) 등의 수도 근대화가 진행되었다(Mazuré 2015, 85). 레기아 정부는 공공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민간 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1919-1929년 사이 레기아 정부의 공공투자 예산이 이전 시기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비대해졌다(Portocarrero et al. 1998, 19). 공공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주로 광산 수출세와 외채에 기반했다(Portocarrero et al. 1998, 24).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는 도시 개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Cockburn, 2020: 68).

도시 건조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을 담당했던 정부 기관은 산업부(Ministerio de Fomento y Obras Públicas)⁸⁾ 산하의 공중 위생부(Dirección de Salubridad Pública)였다(Hernández 2015, 40; Coronado 2018, 194). 물론 레기아 정부는 도시화 과정과 공공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일부 법과 규정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민간기업의 활동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 자본의 투자와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8) 산업부는 피에롤라 정부 아래 설립되어, 주거지, 공중위생, 도시 발전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Mazuré 2015, 66).

담당했다. 정부는 1920년 토지 수용법(Ley 4108)을 발효하여 공공사업과 인프라 건설을 위해 농지 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Cockburn 2020, 67). 1924년에는 도심 외곽 지역의 토지 매매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시화 규율(Primer Reglamento de Urbanizaciones)을 제정하고 이를 공중 위생부 산하의 도시화와 건설 기술 관리청(Inspección Técnica de Urbanizaciones y Construcciones)에 맡겼다(Coronado 2018, 179).

레기아 정부는 도시 개발을 위한 법규를 마련했지만, 실제 도시화의 과정은 민간기업이나 도시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Coronado 2018, 186). 도심 외곽 남부 해안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로가 건설되면서 대로의 양쪽 변을 따라 농촌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리마 엘리트들이 민간 도시 개발 기업을 세워 토지 임대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곳에 주로 중산층의 주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Coronado 2018, 179). 부동산 시장이 엘리트들의 이윤 창출 기회로 인식되면서 1919~1930년 사이 16개의 도시 개발 기업이 형성되었다(Coronado 2018, 185). 각각의 도시 개발 기업이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이후 미라플로레스, 산 이시드로, 린세 구(distrito)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Coronado 2018, 185-186). 민간 자본이 개발권을 얻어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도시화를 주도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부동산 관련 금융 체제도 발전했다(Coronado 2018, 187).

이렇게 부동산 시장 형성을 통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수도 사업, 도로 건설, 도로포장 등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이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기업 더 파운데이션 컴퍼니(The Foundation Company)가 있다(Coronado 2018, 194).⁹⁾ 더 파운데이션 컴퍼니는 미국계 기업으로 1921-1929년 사이 페루에서 활동했으며, 레기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상하수도, 도로포장, 쓰레기 수거 체계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했다(Mazuré 2015, 133; Coronado 2018, 180-181). 이러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더 파운데이션 컴퍼니는 미국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수입해왔다(Mazuré 2011, 114). 이처럼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리마의 엘리트와 미국 기업이 경제적 이윤 창

9) 도시화 사업을 주도한 외국 기업들로는 더 파운데이션 컴퍼니(The Foundation Company)를 비롯하여, 웨스트 코스트 리더(West Coast Leader) 등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다(Mazuré 2015, 132).

출을 도모하면서 레기아 정부 시기 도시 근대화는 도시 공간의 자본주의화와 더불어 주거지의 공간·사회적 분리라는 성격을 드러냈다.

파리의 경우,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과정에서 서민들의 집이 철거되거나 북동부의 도심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주거지 공간적·사회적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김홍순 2021, 46). 다시 말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공간이 자본화되면서 상류층은 주로 파리 중심부와 서쪽의 고급 주거 지역에, 노동자와 빈민은 파리 북동부나 교외 지역으로 분리되어 정주하게 되었다(박성창 2022, 244). 반면, 리마의 경우, 파리와 같이 도심 공간이 직접적인 재개발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된 주거 공간에는 오히려 노동자나 빈민층은 계속해서 정주했다. 반면, 도심 외곽에 대로가 개통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은 도심을 떠나 미라플로레스, 바랑코, 초리요스, 마그달레나 등 남부 해안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겨가게 되면서 주거지가 공간·사회적으로 분리되었다. 중산층이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도로, 대중교통, 전기 및 상수도 등의 도시 사회 서비스들도 새롭게 도시화되는 지역으로 집중 투자되었다(Cockburn 2020, 67). 그 결과, 미라플로레스(Miraflores) 인구는 1920년 5,464명에서 1931년 23,142명으로 241.82% 증가했고, 바랑코 인구는 9,730명에서 13,984명으로 43.7% 증가, 마그달레나 누에바(Magdalena Nueva)는 2,047명에서 7,812명으로 281.6% 증가, 초리요스(Chorrillos)는 6,575명에서 7,293명으로 10.9% 증가했다(Bromley & Barbagelata 1945).

2. 미완된 민족 정체성의 구현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대규모 공공사업과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공간의 자본화와 주거 공간의 공간·사회적 분리라는 성격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레기아 정권은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기념물을 배치하여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공공장소에 건립된 기념비나 동상은 특히 근대 도시에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민유기 2017, 260).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빈번히 마주하는 광장, 공원,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적 기념물을 배치함으로써, “공동체가 지

년 영광스런 과거를 환기”시키고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박구병 2017, 405). 때문에, 공공장소에 배치된 동상, 기념물은 “표상화된 혹은 상징화된 집단적 기억의 매개물”로 볼 수 있다(민유기 2017, 259). 레기아 정권의 경우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된 도시와 번영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독립 영웅과 영광스런 과거(즉 원주민의 문화유산)를 도시 공간에 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독립 영웅을 기념하는 공공 공간과 동상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앞서 살펴본, 산마르틴 광장 및 동상의 건립과 레세르바 공원의 수크레 광장과 동상의 건립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 영웅에 대한 기념물을 건설하는 것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레기아 정권이 민족 정체성 형성에 있어 보다 강조한 요소는 인디헤니즘을 통한 원주민적 요소의 재정립이다. 특히 민족 정체성의 상징 체계에서 원주민적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레기아 정권은 고고학과 예술 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새로운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 레기아 정권은 고고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일 출신 고고학자인 막스 울레(Max Uhle)가 나스카(Nasca) 유적을 발견하는 등 고고학적 성취가 이뤄졌고, 1906년 국제 박람회 기념 궁전(Palacio de la Exposición)에 국립 역사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고고학적 발견을 가시화하였다(Mazuré 2015, 106). 특히 1911년에는 미국 출신의 고고학자인 하이람 빙햄(Hiram Bingham)이 마추픽추(Machu Picchu)를 발견하면서 페루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뒤이어 차빈(Chavín), 모체(Moche), 파라카(Paraca) 문화의 유물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었다(Mazuré 2015, 106).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류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낭만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었고,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에 대한 향수가 팽배해 예술가들 역시 원주민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Mazuré 2015, 106-107). 따라서 20세기 초 고고학적 발견과 고고학의 발전은 민족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원주민 문화를 국가의 공동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Mazuré 2015, 107).

홀리오 테요(Julio C. Tello)는 페루의 고고학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레기아 정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 주도의 인디헤니스

모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유학 후 1913년 페루로 돌아온 테요는 국립 박물관의 인류학부장직을 맡았는데, 당시 국립 박물관장이었던 에밀리오 구티에레스(Emilio Gutiérrez de Quintanilla)와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Montenegro 2006, 143). 이후 1919년 테요는 산마르코스 대학교에 고고인류학박물관을 설립했고, 차빈 데 우안타르(Chavín de Huantar) 고고학 조사단을 지휘하기도 했다(Montenegro 2006, 143). 테요의 요청으로 1924년 레기아 정부는 1924년 페루 고고학 박물관을 건립했고, 테요가 박물관장을 맡아 1930년까지 이끌었다(Montenegro 2006, 146; Mazuré 2011, 137). 1924년 아야쿠초 전투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페루 인류학 박물관 개장행사도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페루 문화 박물관(Museo de la Cultura Peruana)으로 쓰이고 있다(Montenegro 2006, 146). 테요는 레기아 정부가 원주민의 문화를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테요는 고고학의 정치·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고학을 통해 원주민과 원주민 문화의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했다(Montenegro 2006, 142). 때문에, 테요는 고대 유물을 보존, 연구하고 공공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원주민의 영광을 재확인하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Montenegro 2006, 146).

이러한 고고학에 대한 테요와 레기아 정부 간 조응의 결과, 리마에서도 원주민적 요소를 이용한 상징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레기아 정권이 원주민적 요소를 활용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징을 활용한 것은 멕시코와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것이다. 멕시코는 20세기 초반 멕시코 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통해 혁명 이후 교육이나 문화 정책을 등을 중심으로 원주민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 쓰기와 원주민 상징의 활용이 이뤄졌다. 특히 멕시코의 혁명 이후 정권은 메스티사헤(mestizaje)라는 혼혈성을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을 시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벽화운동(muralismo)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의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반면, 레기아 정권의 경우 관 주도의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이해는 일부 원주민 문화의 상징적 요소를 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머물렀다. 물론 정권 초기 친(親) 원주민 정책을 시행하고 원주민의 문화를 민족 정체성에 포함하기 위해 고고학의 발

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세르바 공원의 고고학 유물을 전시한 공간이나 원주민적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물 등은 실제 원주민적 요소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유행하는 예술 경향을 따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레기아 시기 리마의 도시 기념물에 대한 저서에서 마수레(Mazuré)는 1920-193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미술 양식인 아르 데코(art déco) 양식의 장식물들이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되면서 레기아 정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Mazuré 2015, 356). 마수레는 아르 데코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스타일을 혼합하는 것인데, 리마의 근대화 과정에서 활용된 원주민적 상징물은 오히려 이국적 요소의 활용을 통해 파리가 선도하는 예술적 유행을 따르고자 한 의도와 관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Mazuré 2015, 356). 이는 원주민 혹은 원주민적인 것을 과거에 제한하고 과거에 대해 낭만주의적 접근을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족 정체성에 인종적 혹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Mazuré 2015, 356). 더욱이 리마의 경우, 쿠스코(Cusco), 멕시코시티(Mexico City), 로마(Roma) 등과는 달리 규모나 영향력의 측면에서 거대 고고학적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마에서의 원주민적 요소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소수의 기념물에 활용되는데 그쳤다(Joffré 2014, 51).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로 자국의 역사를 스페인 이전의 원주민 문화에서 찾고, 이를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족 정체성의 상징 체계에서 원주민적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레기아 정권은 고고학과 예술 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새로운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 레기아 정권은 고고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V. 결론

19세기 런던, 파리 등과 같은 선진 산업국 도시들의 근대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19세기 나폴

레옹 3세의 주도하에 센 주의 지사 오스만이 시도한 파리 대개조는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에 따른 전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가 주된 동력이었다. 반면 수도의 파리화 혹은 오스만화를 지향했던 19세기 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도시 근대화는 도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식민 도시와 단절하고 진보와 근대화를 추구한 엘리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었던 도시 근대화의 사례 중 페루의 수도 리마의 사례를 다루었다. 리마의 도시 근대화는 총 3시기에 걸쳐 시도되었는데,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전쟁, 태평양 전쟁 등으로 인해 앞의 두 시기에 시도된 도시 근대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마의 도시 근대화가 본격화된 레기아 집권 2기를 중심으로 리마 도시 근대화의 배경, 과정 및 성격에 관해 분석하였다.

레기아 정부는 1919년 집권하면서 신 조국이라는 기치 아래 이전의 과두 지배 체제와의 단절과 함께 페루의 근대화 발전을 시도했다. 특히 정권의 근대화 노력이 가시화된 사례 중 하나가 수도 리마의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레기아 정권은 신 조국을 통해 두 가지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나는 산업화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해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신 조국의 경제적, 정치 문화적 목표는 리마의 근대화 과정에서 물리적·상징적 공간의 변화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대로 건설과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리마의 도시 공간이 확장되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광장과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 그곳에 기념비와 상징적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신 조국의 민족 정체성을 재현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는 산마르틴 광장과 레세르바 공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레기아 정권이 시도한 수도 리마의 근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공중 보건 위기와 주거 문제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건조 환경에의 투자와 그에 따른 도시 근대화의 과정은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과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이었다. 다만, 파리의 오스만화가 민간 자본의 추진력과 더불어 나폴레옹 3세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오스만의 기술 관료적 전문성이 함께한 결

과라면, 1920년대 리마의 도시 근대화 과정은 레기아 정부의 수사적 의지와 더불어 미국 자본과 토지 소유 엘리트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리마의 엘리트와 미국 기업이 경제적 이윤 창출을 도모하면서 레기아 정부 시기 도시 근대화는 도시 공간의 자본주의화와 더불어 주거지의 공간·사회적 분리라는 성격을 드러냈다. 두 번째, 레기아 정권은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기념물을 배치하여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레기아 정권이 원주민적 요소를 활용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징을 활용한 것은 멕시코와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것이다. 레기아 정권의 경우 관 주도의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이해는 일부 원주민 문화의 상징적 요소를 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레기아 시기 페루의 수도 리마의 도시 근대화 과정이 진행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물리적·상징적 공간의 변화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레기아 정권은 이전의 엘리트 공화국과의 단절을 통해 페루의 근대화를 시도했으나, 리마의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레기아 정권이 신 조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도한 근대화 시도는 해외자본과 수사적인 상징성에 기댄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때문에, 레기아 정권이 시도한 페루의 근대화는 그 정당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권위주의화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기아 시기 미완된 페루의 근대화 시도는 결국 벨라스코(Velasco) 시기에 가서야 다시 시도되게 된다. 벨라스코 시기의 리마 도시화는 국가와 엘리트가 주도한 도시 근대화와 차별된 성격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홍순 (2021). 『인물로 보는 서양 근대도시계획사』. 박영사.
- 민유기 (2017). “제국의 심장’에서 ‘시민의 광장’으로, 런던 트래펄가 광장.” 주경철·민유기 외. 『도시는 기억이다』. 서해문집, pp. 228-257.
- 박구병 (2017). “혁명의 기억, 멕시코시 혁명기념건축물.” 주경철·민유기 외. 『도시는 기억이다』. 서해문집, pp. 402-429.
- 박성창 (2022). 『파리로 떠나는 도시산책 인문여행』. 가로수살롱.
- 서지현 (2023a). “식민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의 전환: 19세기 페루 리마의 사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34권. 제1호, pp. 113-144.
- _____ (2023b). “1940-1960년대 페루 발전과 리마 도시화의 성격.”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16권. 제1호, pp. 155-183.
- _____ (2023c). “중국인의 페루 이주와 리마 정착 초기 전염병 확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배제.” 『비교문화연구』. 제70집, pp. 119-152.
- 하비, 데이비드 (2019).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 1830-1870』. 김병화 역. 글항아리.
- Aguirre, M. (2016). *Los cambios urbanísticos de Lima entre los años 1900-1960 por la Influencia de la Industrialización y las Políticas Urbanas*. Tesis de Baciller, Universidade Federal da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 Bromley, J. and J. Barbagelata (1945). *Evolución urbana de la ciudad de Lima*. Lima: Consejo Provincial de Lima.
- Cabrejo, F. M. (2001). *Diversiones Públicas en Lima 1890-1920: La Experiencia de la Modernidad*.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Universidad del Pacífico; IEP.
- Casanova, E. (2006). “Lima: capital de la Patria Nueva: el Doble Centenario de la independencia en el Perú.” *APUNTES*. Vol.19. No. 2, pp. 256-273.
- Cockburn, J. (2020). “Los estudios urbanos en el Perú, 1990-2021.” *Investiga Territorios*. Vol. 12, pp. 11-17.
- Coronado, J. E. (2018). “La Urbanización al sureste de Lima a lo largo de la Avenida Leguía y las malas prácticas de los desarrolladores inmobiliarios entre los años 1919 y 1930.” *Anuario de Espacios Urbanos, Historia, Cultura y Diseño*. Vol. 25, pp. 175-197.

- Cueto, M. (1991). "La Ciudad y las Ratas: La Peste Bubónica en Lima y en la Costa Peruana a Comienzos del Siglo Veinte." *Historica*. Vol. 16. No. 1, pp. 1-26.
- Hernández, C. P. (2015). "Arquitectura y discurso simbólico en el Oncenio de Leguía: una aproximación a través de sus edificios oficiales(1919-1924)." *Diacrónica*. Vol. 4. No. 3, pp. 33-47.
- Joffré, G. R. (2014). *El Neoperuano. Arqueología, Estilo Nacional y Paisaje Urbano en Lima, 1910-1940*. Municipalidad Metropolitana de Lima; Sequilao Editores.
- López, A. G. (2014). *La Modernización Urbana de Santiago de Chile, Buenos Aires y Ciudad de México en la Segunda Mitad del Siglo XIX*.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de Chile.
- Ludeña, W. (2002). "Lima: poder, centro y centralidad. Del centro nativo al centro neoliberal." *Revista Eure*. Vol. 28, pp. 45-65.
- Mazuré, J. H. (2011). *Monumentos públicos en espacios urbanos de Lima 1919-1930*.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 Barcelona.
- Mazuré, J. H. (2015). *Leguía, el Centenario y sus monumentos*.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Mesía-Montenegro, C. (2006). "Julio Tello: Teoría y práctica en la arqueología andina." *Arqueología y Sociedad*. Vol. 17, pp. 33-48.
- Molina, S. B. (2015). "Lo Andino: El Indigenismo Peruano y Sus Iniciativas por Establecer una Sociedad Moderna." *Revista en Historia General*. Vol. 2, pp. 95-113.
- Montenegro, C. M. (2006). "Julio C. Tello: teoría y práctica en el Arqueología Andina." *Arqueología y Sociedad*. Vol. 17, pp. 141-158.
- Navarro Jiménez, F. J. (2016). *"Dejar el Casco Antiguo": Dos Casos de Modernización Urbana en América Latina: Lima y La Ciudad de México, 1895-1910*. Tesis de Maestría, CIDE, Mexico.
- Parker, D. S. (1998). "Civilizing the City of Kings: Hygiene and Housing in Lima, Peru." Pineo, R. and J. A. Baer. *Cities of Hope. People, Protests, and Progress in Urbanizing Latin America, 1870-1930*. Boulder: Westview Press, pp. 153-178.
- Portocarrero, F. et al. (1998). *Inversiones Públicas en el Perú(1900-1968). Una Aproximación Cuantitativa*. Lima: Centro de Investigación. Universidad del Pacífico.
- Quispe, F. (2017). "La Gran Lima y la Planificación Urbana 1926." *Revista A*. No. 9. pp. 94-99.
- _____ (2020). "Urbanizaciones y espacios públicos en Lima: San Iridro, Chorrillos

- y Miramar. 1919-1930.” *Arquitextos*. Vol. 35, pp. 83-96.
- Rama, A. (1998). *La Ciudad Letrada*. Montevideo: ARCA.
- Sanchez, M. (2018). *Indigemismo, Indianismo, and Incaísmo in Peru: Negotiating narratives of identity and class in a neoliberal hegemony*. Bachelor's Degree Thesis. Rhodes College, Tennessee.
- Stiglich, M. (2019). *City Planning: The Techno-Political Economy of Privately-Finance Highways in Lima*.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Tapia, H. (2018). *La Influencia de Daniel Hernández en el lenguaje visual de sus estudiantes y los inicios de la Escuela Nacional de Bellas Artes (1919-1931)*. Tesis de Maestría, PUCP, Peru.

2. 기타

산타 베아트리스 지도. <http://limamilenaria.blogspot.com/2017/12/lo-que-viene-pasando-en-santa-beatriz.html>. (2023년 11월 1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3년 11월 11일 |

| 논문심사일 : 2023년 11월 22일 |

|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09일 |

| ABSTRACT |

***Nueva Patria* and Urban Modernisation of Lima under the Leguía Regime**

Seo, Ji-hyun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th century, the modernisation of cities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London and Paris was a response to the problems of urban society that emerged during the process of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On the other hand, the urban modernisation of Latin American countrie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was oriented towards the Parisification or Haussmannisation of the capital, was a response to urban social problems as well as a reflection of the desire of the elites to break with the colonial city and pursue progress and modernis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 of Lima, the capital of Peru, among the cases of urban modernisation that took place in Latin America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ses the background, process, and nature of the urban modernisation of Lima with a focus on the second period of the Legía administration, when the modernisation of the city of Lima was in full swing. The modernisation of Lima under the Legía regime, revealed two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he process of capitalising urban space, as was the case with Haussmann's Renovation of Paris, in order to invest in the built environment and the resulting urban modernisation in order to solve urban problems such as public health crises and housing problems. However, if the Haussmann's Renovation of Paris was the result of the strong political will of Napoleon III and the technocratic expertise of the Haussmann, as well as the momentum of private capital, then the

process of urban modernisation in Lima in the 1920s was led by the rhetorical will of the Legía government and the investment of the US capital and land-owning elite. Second, the Legía regime sought to create public spaces such as squares and parks, and place various monuments there to serve as symbolic spaces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 Legía regime's use of indigenous elements as symbols to shape its national identity is very weak, compared to Mexico. In the case of the Legía regime, the understanding of the *indigenismo* was limited to the placement of some symbolic elements of indigenous cultures in urban spaces.

▪ Key words: Urban Modernisation, Leguía Regime, Lima, Peru, Nueva Patria